

# 한·미관계는 호혜적 동반 시대로

## 수행기자단과의 회견

1981년 2월 5일

질문 : 이번 미국 공식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데 대한 소감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

답변 : 과거 70년대부터 한·미관계가 조금은 서먹서먹한 감이 없지 않았다. 「10·26사태」 이후 한·미관계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관계가 그리 원만한 것 같지 않았다. 북한같은 데서는 한·미관계가 금이 간 것으로 오판하고 단독으로 미국과 직접 교섭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기까지 했었다.

이번에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결과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확인 정도가 아니라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돈독하게 됐다고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나를 초청해 주어 「레이건」 대통령 및 미국행정부의 주요 책임자들과 나와 우리 정부 각료들이 인간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또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과 단독회담 때 만나보니 위대한 정치가일 뿐 아니라 대전략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위대한 정치가는 국가가 크든 작든 국가를 영도하는 데 있어 정치적 신념과 이념이 뚜렷하고 이념에 입각하여 자기가 제시한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정치인의 얘기는 구령이 담넘어 가듯이 좋은 말이나 인기위주의 말만 하는 것이며, 약속과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치적 발언」이라고 했다.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 자기 말과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치인이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가 제시한 정치이념은 그때그때의 상황과 시대적인 조류에 적합해야지 그에 맞지 않고 이상주의자같은 정책 제시여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민도가 높고 정치수준이 높아 그런 정치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레이건」 대통령을 접해보니 정치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고 발표된 정책과 공약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다.

나와의 대화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다.

80년대의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맞이한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다행인 일이며,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국인 만큼 자유맹방국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맹방이 미국을 중심으로 단합할 계기를 마련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 이 시기에 미국에 이러한 위대한 정치가가 나온 것은 미국과 자유세계에 모두 다행한 일이며 하느님이 선택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나는 대전략가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략가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포착한다.

전투지휘관의 경우에도 상황판단과 자기의 위치 및 좌표를 정확히 알고 적의 상황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미국의 현 위치와 좌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우방국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위대한 전략가가 아니면 안 된다.

군대에서도 야전군사령관이 예하부대의 실정을 모르고 이상만 강요하면 그 군대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미국이 우방국가가 놓여 있는 특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고 역사적 배경과 전통적인 문화를 참작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고 자유우방의 분열만 가져온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전략가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인간적으로 대단히 친밀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지도자와 직접 만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동관심사에 관해 격의없이 얘기한 것은 두 나라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81년에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과 각료들이 자기들의 좌표와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앞으로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힘이 되어 주겠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전폭 협력하겠다고 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호혜적, 동반자적 입장에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협력을 실효성있게 해주겠다고 기꺼이 보장했다. 미국이 자진해서 이른 시일 안에 안보협의회와 경제정책협의회도 갖겠다고 했는데 전에는 전반적인 정책협의회만 있었을 뿐 경제정책협의회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했으므로 이번 방문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고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질문 :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정상회담을 자주 하실 의향이 계신지? 일본의 「스즈끼」 수상과 한·일정상회담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답변 : 나의 방일초청에 관한 일본신문 보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만큼 정상회담을 하자고 해오면 기꺼이 응해서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거도 있고 해서 당분간 국내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질문 : 재외동포들을 돌아보고 느끼신 소감은.

답변 : 교민들이 상상외로 열렬한 환영을 해주었다. 일일이 손을 잡고 감사를 드렸어야 하고 리셉션에서 교민들 모두를 만나면 좋겠지만 장소가 협소해 그럴 수가 없어 안타깝다. 일부 국내문제와 과거 감정 때문에 몇몇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 숫자가 지극히 적었다.

그들에게도 모국방문을 허용하는 등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관용을 베풀겠다.

일부 교포들을 저녁에 만나보니 12년만에 조국의 국가원수가 미국에 와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 어깨를 펴고 한국인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

